



기후부-농식품부, 농업과 환경의 상생협력 본격화

- 기후부-농식품부,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취양수장 개선 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하여 수계 오염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시비량 저감은 비료 비용을 절감해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완효성 비료 보급, 물꼬 설치 등 최적관리기법은 농작업 효율을 높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양수장을 개선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영농환경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 부처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실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취·양수장 개선은 수질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이끄는 구조적 해법”이라며, “환경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적정시비와 최적관리기법 확산은 농가 비용과 노동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농업 혁신 정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낙동강 등 주요 수계 수질 개선을 포함한 농축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발전을 함께 달성하는 부처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기후부-농식품부 업무협약 행사 개요.
- 2.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담당자	서기관	김양희 (044-201-7006)
		담당자	사무관	김영범 (044-201-6999)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책임자	과 장	곽기형 (044-201-2431)
담당자		사무관	김윤수 (044-201-2435)	

□ 배경 및 목표

- (배경) 농축산 활동에서 기인한 수질오염 문제,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물 이용 불안 등 환경-농업분야 수질·수량 복합과제 발생
- (목표) 환경·농업정책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축산분야 환경부 하량 감축, 지속가능한 농축산 활동지원, 안정적 물관리 추진

□ 협약식 개요

- (협약명)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기후부-농식품부 업무협약
- (일시/장소) '26.3.4(수) 10:00~10:20 / 세종정부청사 6동 회의실 (565호)
- (참석) 기후부 제1차관,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장 등, 농식품부 차관,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장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10:00~10:04	4'	· 참석자 및 내빈소개 (사회자)
10:04~10:10	6'	· 인사말씀 : 농식품부 차관, 기후부 제1차관
10:10~10:12	2'	· 협약 내용 설명 (사회자)
10:12~10:15	3'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0:15~10:20	5'	· 기념촬영 및 폐회

□ 협약 주요내용

- (협력분야) ①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효율적인 수거·처리 체계 구축, ②농경지 최적관리기법(BMPs*) 보급 및 수경재배 폐양액 관리, ③취양수장 시설 개선 및 저수지 녹조 모니터링 확대 등

* BMPs(Best Management Practices): 농업 오염물질 발생·유출 최소화 위한 현장중심 관리기법

- (협약체 구성)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협력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반기 1회)으로 운영*

* 실장급 실무협의회 수시 개최, 안건 관련 국·과장 참석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 농림축산식품부 업무협약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양 부처'라 한다)는 농축산 분야 환경부하량 감축, 지속가능한 농축산 활동지원,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부처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상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부처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가축분뇨 에너지화, 효율적인 가축분뇨 수거·처리 체계 구축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감축, 수질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과제
2. 농경지의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최적관리기법(BMPs)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수경재배 시 발생하는 폐양액을 관리하는 등 친환경 농업과 수질개선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과제
3. 농업용수 등 안정적인 물이용 여건 마련을 위해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고 저수지의 녹조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양 부처의 역량을 동원해 밀착관리하는 과제
4. 농축산 분야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등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과제
5. 기타 양부처가 협의하는 과제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양 부처는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협력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반기1회)한다. 필요시 실장급(또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부칙에 따른다.

제4조(효력발생 및 기간)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지된다. 협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연장 등에 대해 양 부처 간 상호 협의하며, 그 이전 어느 일방이 협약서의 변동 및 폐기를 원할 경우 30일 전에 상대 부처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비밀 유지) 양 부처는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공개시 사전에 협의한다.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사항은 양 부처 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양 부처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3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금 한 승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 종 구